

나주 혁신도시, 창업기업 제품 외면

창업기업 우선구매제도 시행 첫해 구매율 1.4% 그쳐 '목표율 8% 달성' 농촌경제연구원·전력거래소 등 4곳

정부가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기관 가운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율 8%를 달성한 곳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4곳뿐이었다. 한국전력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전KDN 등 3곳은 구매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4개 기관의 지난해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 12조6028억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4%에 해당하는 177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해 전국 공공기관 849곳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 1.8%(154조원 중 2조7000억원)를 밑돌았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판로

개척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도입돼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한해 구매총액의 최소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목표비율 8%를 넘긴 기관은 4곳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구매액 96억원의 15.7%에 달하는 15억원 상당을 창업기업으로부터 사들이며 목표를 달성했다.

이외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치를 웃돈 기관은 ▲전력거래소 15.0%(520억원 중 78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6%(409억원 중 43억원) ▲문화예술회관연합회 9.3%(183억원 중 17억원) 등이 있었다.

반면 14개 혁신도시 기관 중 10곳은 목표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0조2572억원)에 이어 849개 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구매액이 많은 한전은 창

업기업제품을 0.5% 사들이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한전 총 구매액은 8조6783억원으로,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0.5%인 396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한전 구매비율이 가장 낮았고 사학연금 0.5%, 한전KDN 0.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 한전MCS 2.3%, 한국인터넷진흥원 2.5%, 한국농어촌공사 3.0%, 한국콘텐츠진흥원 3.5%, 한전KPS 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8% 등이 뒤를 이었다.

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은 3.0%였지만 구매 금액은 912억원으로 전체 준정부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율이 저조한 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공공기관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의무 구매 여부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 유기동물 보호소 후원 행사 인터넷진흥원 바자회 개최...6개 기관 노사 동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유기동물 보호소 후원을 위한 자선행사를 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일주일 동안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후원을 위한 바자(사진)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인터넷진흥원과빛가람상생연구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한국농어촌공사 노조가 행사에 동참했다.

지역민과 지역 상인 등이 기부한 반려동물용품과 기류 등이 매대에 올랐으며, 수익금 일부는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인 '나주 천사의 집'에 전달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사는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 2000부를 제작·배포하



기도 했다.

황보성 인터넷진흥원 혁신전략단장은 "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나주시민과 노사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ESG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정부순지원 2조5천억 '8위'

지난해 수입의 55.9% 차지...국민연금 31조4701억 '1위'

농어촌 정비와 농지 매입·임대 등을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난해 정부순지원이 2조5000억원을 넘으며 공공기관 1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부순지원수입은 2조5511억원으로, 전체 수입 가운데 55.9%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 정부순지원은 전년보다 1.2%(304억원) 증가했으며, 4년 연속 증가 추세다.

최근 4년간 농어촌공사 정부순지원수입은

2018년 2조2048억원, 2019년 2조2594억원, 2020년 2조4373억원, 지난해 2조5207억원, 올해 2조5511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공사 정부순지원은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1위는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국민연금공단(31조4701억원)이 차지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9497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조363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퇴임대비 교직원 연수 내달 추가 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올해 하반기 '퇴임대비 교직원 연수'를 다음 달 한 차례 더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연수는 지난 6월과 지난달 말 두 차례 걸쳐 열렸으며, 교직원의 높은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에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2022년 하반기 퇴임대비 교직원 연수'가 진행됐다.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벌인 인터넷 신청 접수에는 약 300명이 몰렸다.

퇴임대비 연수는 사학연금제도와 100세 시대

재무 계획, 건강한 자세 만들기, 국약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퇴임대비 교직원 연수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에는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시작했다.

올 상반기 6월 연수에는 총 144명의 교직원이 참가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직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금뿐 아니라 교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개발 업무협약식'에서 김장현(가운데) 한전KDN 사장과 김흥연(왼쪽) 한전KPS 사장 등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전력그룹사 '탄소중립' 사업 개발 협력

한전KDN·한전KPS·한전기술, 디지털 전환 등 협약

한전KDN과 한전KPS 등 전력그룹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KDN과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전환 및 사업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 김흥연 한전KPS 사장,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이 참석했

다. 이들 3개사는 협약을 맺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소·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3개사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지능형 디지털발전(IDPP) 등 에너지 정보통신기

술(ICT)에 대한 사업 ▲신재생과 관련한 투자사업 공동개발·설계·구축 및 O&M(운전·유지보수) ▲4차산업 핵심 기술(AICBM)기반의 디지털전환 고도화 사업 및 개발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 기술 개발 및 연구과제 공동참여 등에 협력한다.

전력ICT와 발전소(원자력·화력 등) 설계와 정비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력엔지니어링 전문 기술 역량의 융합과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협약 참가사들은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